

# “더 나이들기 전에 봉사해야죠”

## 윤평희·서갑희씨 ‘사랑의 미용실’ 7년째



“할머니 오랫동안 오셨네요”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이·미용 봉사를 하는 서갑희(왼쪽), 윤평희 씨가 할머니들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다

한 달에 두 번 열리는 이 미용실에 유난히 단골손님이 많다. 5년째 ‘사랑의 미용실’에 다니고 있는 황인화 할머니(63)는 미용실이 열리는 날에 맞춰 40여분 넘게 버스를 타고 달려왔다. 돈 내고 미용실 갈 형편이 안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곳에서는 ‘사람 사는 곳’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다른 미용실은 늙은이라 신경도 안 써주고 머리 손질도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 오면 마음도 편하고 머리도 마음에 쏙들게 손질을 해 줘요’ 미용사들이 머리를 마는 동안 고무줄이 머리를 매는 동안 고무줄이 머리를 매는 종이를 순서대로 건네주며,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해 몸이 불편한 이야기, 주말에 소풍 다녀온 이야기까지 그동안 마셨던 이야기보다 더 즐겁게 여담이 많다.

7년째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무료 미용실을 꾸리고 있는 봉사자들은 바로 윤평희, 서갑희(56) 씨. 20대 초반, 대전의 한 미용실에서 함께 일하며 사귀던 친구다. 대전에서 서울로 자리를 옮겼을 뿐 30여 년 넘게 우정을 간직해온 두 사람은 “결혼하지 말고 사회사업을 하자”던 약속을 절반만 지켰다. 각자 단란한 가정을 꾸리면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평희 씨는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의 산증인이다. 처음 센터를 세우던 1991년부터 노인무료 경로식당에서

따라 강남 가는 격으로 한다”지만 주말 때마다 윤 씨와 함께 지방 복지관에 봉사활동을 가는 것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출장미용’도 하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질 때엔 미용도구들이 가득 든 가방을 들고 비탈길, 골목길을 따라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가는 “처음엔 ‘집 안에 머리카락이 날린다’고 투정을 부리던 어르신들이 ‘머리를 자르니 기분도 시원하다’, ‘머리 모양이 마음에 쏙 든다’며 칭찬해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서 씨는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무조건 젊음

## 월2회 할아버지·할머니들 머리손질 거동불편한 노인들 위해 출장미용도

주방일과 청소도 도맡아 하고 주말이면 이 미용봉사까지 해온 윤 씨는 원만한 복지사들보다 이곳 사정에 밝다. 올해로 봉사활동한 12년째, 송파 노인센터뿐 아니라 용인의 노인요양원과 안성 효문화원에도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다. 남편이 안성 효문화원에 근무하는 탓도 있지만, 매일 이곳을 찾아 주방일과 미용봉사활동을 한다. 주말에 잠깐씩 품을 들인 주말농장에서 수확한 고추며 깻잎, 호박 등을 센터로 나르는 것도 윤 씨의 몫이다. 서갑희 씨는 5년 전 미용실을 접고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나섰다.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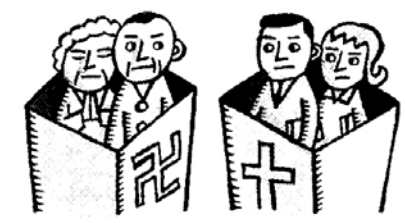
머리, 퍼머머리만 좋아하시는 건 아니에요. 최대한 의견을 존중해서 헤어스타일을 만들어드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말한다. 매일 봉사활동에 여념이 없는 이들에게 할아버지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여행 많이 다니라”고 충고하자 두 사람을 입을 모아 말한다. “더 나이 들기 전에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65살까지만 봉사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부처님 가피가 어디 있었어요?” 글=여수형 기자 사진=임민수 기자

# 소설가 남지심 化緣에서 읽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개종문제 인간의 삶은 ‘가족’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문제는 모든 문제에 우선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 개종을 해야하나 말아야하나를 놓고 고민하는 50대의 한 부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20여 년간 교편을 잡고 있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 학교를 그만둔 부인은 그 후 불교에 귀의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자신의 종교가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부터였다고 합니다. 아무 종교도 가지지 않고 한 생을 살다가 그녀의 남편은, 남겨진 가족에 의해 마치 종교전쟁을 치르듯 하고 이 세상을 하직했다고 하더군요. 부인은 그 당시를 회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듯 몹시 힘들어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가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적 갈등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서 있던 나무가 제 눈앞에서 두 갈래 세 갈래로 쪼개져 버려진 거예요. 두 갈래 세 갈래로 가지가 쪼개졌는데 그 나무가 본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종교로 겪은 가

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전통적인 가톨릭 집안의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식도 아예 성당에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배성사를 할 때 신부와 같은 신앙을 가지기로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결혼 후 바로 아내와 함께 성당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두 오빠들한테 배신감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던 딸은 결혼 상대도 자신과 종교가 같은 사람을 택해 딸과 사위는 불교신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들보다는 딸과, 며느리보다는 사위와 심정적으로 가깝게 지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실질적인 종교가 갈등을 빚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대로 딸과 사위는 딸과 사위대로 자신들의 종교의식에 따라 장례를 치러야 아버님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확신으로 장례의식을 자신들의 종교의식에 맞게 집행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적대감 비슷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장례를 치른 후부터는 형제들이 거의 불복하다시피



## 가족간 다른 종교로 갈등 겪는데...

족간 갈등이 이미 치유할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음을 부인의 말을 통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소시민의 행복을 누리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던 부인은 큰 아들이 원하는 아가씨를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종교가 다르다는 것 빼고는 출산을 데가 없는 아가씨라 부인도 기쁜 마음으로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시키고 보니 대수롭지 않을 것 같은 종교문제가 결코 대수로운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들러앉아 식사를 할 때 드리는 감사의 기도에서부터 가족이 함께 하는 각종 행사에 이르기까지 며느리는 늘 이질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행이나 등산을 같이 가도 며느리가 절 안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고, 집에서 예불을 드리는 일도 며느리가 있으면 불편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아들 내외를 1년 정도 데리고 있다가 본가를 사귀었습니다. ‘누구시더라, 어디선가’ 하면서 머리를 긁적거리게 된다.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이름을 외고, 다시 만났을 때는 이름을 불러 주자. 그러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해서 왕래 없이 지내다고 합니다.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자식들이 서로 불복하고 지내는 것이 너무도 가슴 아프다고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한 부인은, 아버지가 없으니 이제 큰 아들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큰아들과 같은 종교를 갖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말하자면 큰아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싶다는 얘깁니다. 부인의 말을 듣고 있는 제 머리속에는 긴 기차길이 떠올랐습니다. 윤희를 반복하면서 성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금생의 생은, 거기에서 만나는 인연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걸까요? 그 긴 기차길 위에 세워져있는 간이역 같은 것이 아닐까요? 긴 여행길에서 잠시 만나 함께 가다가 내려야 할 간이역에 닿으면 뿔뿔이 헤어지는 승객 같은 것. 가족 역시 그런 것이라면 차질 없이 목적지에 닿으려고 하는 의지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했던 승객이 내린다고 해서 목적지 가는 일을 접어두고 같이 따라 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化緣 (02)704-3577

◆실리극 공연=안양 시노인복지센터는 11월 2일 오후 3시 10분 센터 3층 강당에서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주제의 가족 실리극을 공연한다. 0311455-0551

◆치매강좌=한국치매가족회회는 11월 8일 오후 2시 부산 국제신문사 강당에서 ‘부산지역 치매시민강좌’를 개최한다. 고신의대 유봉규 교수, 더불어사는공동체 신명자 원장 등이 강연한다. 0511805-6400

◆1일 찾집=대구 재가노인복지봉사센터는 11월 13일 오전 10시 대구 수성구 코리아나 예식장에서 독거노인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1일 찾집을 연다. 053474-9748

◆무료강좌=서울 은평구는 11월 8일 오전 10시 30분 은평노인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세탄병원 임재현 과장의 강의로 ‘아픈 허리 건강관리’ 무료강좌를 연다. 02350-3610

◆건강강좌=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강진센터가 환절기 건강강좌를 실시한다. 할안과 비만도, 스트레스 감사는 무료이며 소변검사와 간·심장 기능검사, 심전도와 안압검사 등이 포함된 전체 검사비용은 5만9,460원. 022601-7161

◆치매·중풍 예방교육=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11월20일 오후 1시30분 복지관 3층 강당에서 치매·중풍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02929-7950

### ‘그 사람’이 아니라 ‘아무개’로 기억하세요

성공을 위한 자세는 ‘이름 외기’라는 것이 있다. 사무적 관계로 만난 사람을 우연히 또는 일로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정확히 이름을 불러 주면 누구라도 감동을 받게 된다는 얘기가. 딱히 처세의 기술 차원이 아니라도,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는 일은 중요하다. 특히 요즘은 직업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명함’이라는 걸 갖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함을 주고받는 태도를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많다. 명함을 주고받

는다는 것은 처음 만나는 사이라는 뜻인 텐데, 이를 써주지 않고 모르면 서 그냥 주머니나 지갑이 넣고 만다. 명함을 받으면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 예의다. 너무 바쁜 상황이라면 보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다시 만나고도 ‘누구시더라, 어디선가’ 하면서 머리를 긁적거리게 된다.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이름을 외고, 다시 만났을 때는 이름을 불러 주자. 그러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다이어트를 위한 절식요법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궁극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최근 정치인들과 일부 연예인들 사이에서 자연발효 원액을 이용한 절식요법이 바람처럼 일고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져나가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욱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가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동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속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서 딱딱하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몸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액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록원(팔보효소) www.chorokwon.com

### 사경용 법화삼부경 출간

경전중에 제왕이며 범부가 범부인체 부처가 되는 길을 설한 법화삼부경(사경용)이 출간되었습니다. 한지(韓紙)를 주문생산하여 법화삼부경 한문 부분 8만여자를 얹어 인쇄하여 한글로 달아 누구나 사경하고 독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화경 사경하고 수행한 공덕으로 오역죄인 제바달다가 성불의 기쁨을 받은 것은 무거운 악업소멸은 물론 복은 종자가 썩어 튼 경우라 하셨습니다. 법화경 한 자 한 자는 바로 법신불 자체이며 우주 생명 그 자체입니다. 정성과 공덕으로 장엄한 법화경 사경을 권합니다.

■ 가격 : 1책 9권(국배판) 100,000원 (무량의경 1, 묘법연화경 7, 보현보살행법경 1)

■ 개 필 : 표지·케이스·비단·본문·안기

■ 구 좌 : 농업 821112-51-000803 삼불사

■ 안 내 : 삼불사 (055)583-3107 · 도서출판 삼보각 (051)804-5714 (구 위음양)

### 3일 안에 깨닫는다

긴 수행과 고행만이 깨달음의 길일까요? 부처님 당시 ‘미미기집’은 8일만에 깨달았으며 중국의 백림사와 보봉사에서 이미 칠나(돈오)에 깨지는 수행법이 있어 왔습니다. 깨달음도 비안드 테크닉(법편)이 필요합니다. 막연한 신앙보다는 직접 체험이 더욱 확실하고 깊습니다. 생각과 꿈이 아닌 구체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체계적인 수행법이 있습니다. 깨달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음을 확언하십시오.

- 무념, 무상과 삼매를 언제나 이루고 싶을 때
- 갈등, 괴로움, 미움과 좌절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악몽과 영가 장애를 스스로 해결, 천도 확인하고 싶을 때
-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 자신의 고통과 질병을 치유하고 싶을 때
-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춤바음 禪林院 033)435-6166, 435-8166

###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지전류·지자기의 유희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 등이 발생합니다. 수맥상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희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사무실·조상묘소의 수맥·지자기·지전류유류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력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살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희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기일 ☎ 053) 255-7370 011)9596-4848